

• 대중간부로 대중간부답게 행동했는가?

• 새시대는?

• 여학 간부로 난 어떤 자세를 취하겠는가?

(시공을 돌아보다.)

좋은 집단지요 이렇게 바뀔 것인가!

① 2002 대중간부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경: 학생에게선 솔직한 학생들과 친밀한 유지.

미나: 새명칭이 시작. 특별한 역할이 있었다. 대표권이 없음이 옳다.

이제 학생과 여학운동에 대한 고민을 ~~중~~ 여학분회답게. 총무총장의 지도사명이 잘 되지 않나..

효영: 학생에 있으며 여학분회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못함. 조사활동도 잘못함..

보경: 선택투표에 노력하였다.

사람마다 보니 다른 마음이 있다. 여학분회가 이도있고.. 어느 누구도 여학분회의 무언지 모르는 듯함.. 여학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참여에서 살고 있나?

보: "대중간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얘기해 보자.

I. 늘 옆에 있으며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II. 더 많은 사람들의 지사라 임박함에서.. 대중의 언어..

대중을 책임지려는 자세. 막연한 책임이 아니라, 책임지기 위하여 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

여학분들의 자각적인 삶을 책임지려고 나는 얼마나 노력했는가?

나에게 대중성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다주: '대중간부'가 무엇인가?

대중으로 살아가지 않았는가? 여학분회란 대중조직이 왜 만들어졌는가 돌아보고..

학생들이 요구한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것이 중요..

대중간부로서의 나의 역할을 고민..

② 새시대란 무엇인가?

보: 학생은 누가 도와줬지?

「고양」으로 나오는 사람들. 공동체에 대한 지향이 잠겨들어있었으나 우리가 끌어내지 못한 거.

2차 배배원. F/S. 인. 대안함. 협회사위 등으로 인한 배배원.

배배를 넘어서 자각적인 흐름은 공동체적으로 똑반적으로 나타냈다.

북에 대한 양자와 배배의 낮아짐.

새시대 공동체란 만들어진 것이다.

학생회에서 새세대는 무엇인가?

학생회 등 각종 단체의 새세대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그 분야를 지켜줄 필요가 있다.

희연: 왜 '새세대'란 걸명을 지었는가

변화는 정서를 만들고 있구나란 생각

학생들의 감개할 함은 끝이내만큼 난 열심히 살았나?

'학생회'에 왜 학생회가 기여드나. 라는 말을 들으며 어떤 학우라 되어왔다는 생각.

학생회 새로운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대해야 할구나.

영길: ~~새~~

공통선언 이후 대외 변화는 경계.. 고민을 좀 더 해야야..

미나: 6.15 공동선언 이행의 유익한 가치사상이 만들어졌다

꼭 통일법만 추구하면 안된다. 추구하는 민중이 직접 주도권을

잡아야 할 일이다. 민중의 의식이 성장했다.

이 시기에 학생회는 바람맞지 못함. 우리는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제부터 바꿔 나터준의 기행사.

방법이 신선하게 맞음.

새로운 세대에
2003년 여학생회 개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 '일제다라기'를 벗어나 스스로 무대를 해야겠다. 독립한 계획을 세워야겠다.

다주: '자립'된 의의의 필요

예전과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꼼꼼하게 계획하고 실행하자.

영: 안일라 내일을 바라는 것이 새세대에 꼭 필요하다.

정원주:

영길: 작은 변화들이 여성에게도..

~~새~~ 새 세대에 대해 입을 열 말하기 시작한 여성들 V 진을 하는 것은 여우를 책임지는 대일

후연: 과를 많이 해야겠다.

여성에게도 많이 알려야겠다.

'학생회 신 대에 대해 대하는 것은 대하고 있구나란 생각

학생회보다 더 부 진하게 대해야겠다.

학생들이 무엇을 대하러 대는 대야겠다.
인터넷. 대는 대야겠다.

대나: 개관기념 살아서 안다했다. '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했나?

가여학생부장을 쓴 서약자. 운동과 대중사업을 잘 바꾸자.
다양한 사람만 나타내 같이 얘기하자.

윤주: '하위조직. 운동대중화'

사람은 많으니까 의식화된 사람이 없네..

각각의 입장을 잘 표현해주는 것이 진정한 대중화이다.

대중의 목소리로 숨쉬고 말해야 한다.

박: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흐름을 대중의
우리는 사람을 안만하게 때문에 지혜를 모른다.

표현. 아쉽. 내내. 안일을 버려야 한다.

관성 등이 어느순간 나오지않는가? 꼭대기 바깥까지 노력해야.

솔직한 모습으로 대개해야 한다. 자기선택, 겸비하려는 노력.

우리 스스로 믿어 줘야지 아니라..

↑
올바른 이미지 향상